

# 풍남문 화려한 빛의 옷을 입는다

### 전주시, 미디어 파사드 3월3일~7월29일까지 매주 목·금 밤 9시부터 30분간 공연

보물 제308호로 지정된 풍남문이 밤마다 첨단 영상기술을 활용한 빛의 옷을 입는다.

전주시는 내달 3일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9시부터 30분 동안 3D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미디어 파사드 공연 '풍남문 빛의 옷을 입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건축물의 외벽을 뜻하는 파사드(facade)와 미디어(media)의 합성어인 '미디어 파사드'는 건축과 미술 빛과 음향을 일체화한 예술 공연으로, 현재 바르셀로나 파밀리에 성당과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 도쿄의 사별 빌딩, 덕수궁 석조전과 경복궁 등에서 공연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사적 228호로 지정된 호남지역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자 국내 대표적인 천주교 성지인 전통성당을 배경으로 미디어 파사드 공연을 운영, 시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이 공연을 올해는 공연 장소를 풍남문으로 옮겨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꾸준한 볼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후백제의 평화로운 마을의 모습을 담은 '후백제의 수도, 전주', 빗꽃나무 아래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순간을 재현한 '오작교와 덕진 연못', 태조 이성계가 승전하는 웅장한 모습과 어진행렬을 담은 태조 이성계와 왕' 등이다. 또 풍남문의 과거 소실과 재건을 연출한 영상과 현대적인 댄스공연과 그래픽효과와 앙상블,



풍남문 빛의 옷을 입다 미디어 파사드 공연

전통적인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팝아트소도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 프로그램 제작 및 구성을 모두 완료한 후 다음달 3일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프로그램 콘텐츠 안정화 작업을 거쳐 오는 4월부터는 본격 공연에 착수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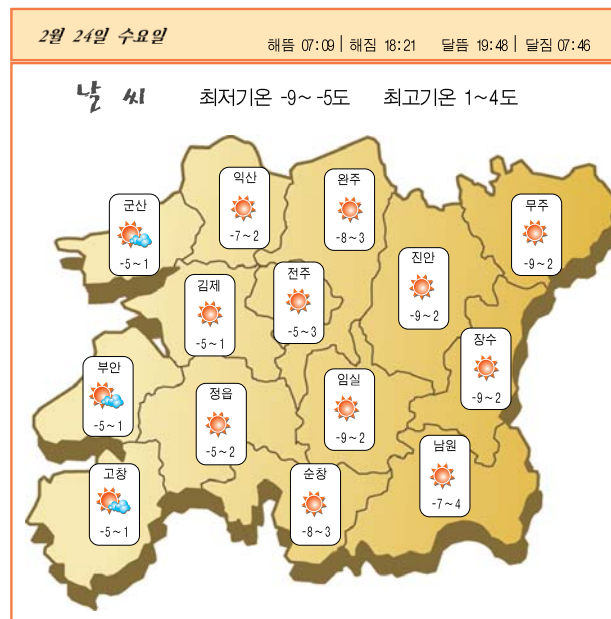
시는 앞으로 운영될 미디어 파사드

프로그램이 한옥마을과 전주를 대표하는 명품 야간 콘텐츠로 자리잡는 것은 물론, 전주에서 1박 이상 머무는 체류형 관광객을 확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수 시 전통문화과장은 "한옥마을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통 공연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운영될 미디어 파사드

머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개발 지원 사업에 전주시와 지역 업체인 30DAYS, 전북도 전주정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응모한 3D 프로젝션 맵핑 및 미디어 그래픽 개발 사업'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미디어 파사드 공연을 추진해왔다. /김영재 기자



## 유·초·중등 신규교사 251명 임명장 수여

도내 유·초·중등 신규교사 새내기들이 임명장을 받고 교단위에 서게 된다. 전북도교육청은 23일 대강당에서 유·초·중등 신규교사 251명(유치원 23명, 초등 54명, 중등 17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임명장을 받은 새내기교사들은 선서를 하고 내달 1일부터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배치돼 신

교교사 생활을 시작한다. 김 교육감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으로 교직생활에 임하여 가고 싶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임명장 수여식에는 신규교사 가족들을 초대해 새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덕진구, 외국문화전도사 사업 참여자 간담회

덕진구는 23일 외국문화전도사 및 지역아동센터장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문화전도사 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외국문화전도사 지원사업은 결혼이주 여성들의 일자리 제공과 관내 880여명의 지역아동들에게 외국어 학습과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외국문화전도사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외국문

화전도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학습지도 임무와 교재선정 등 관련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선정된 외국문화전도사는 3월2일~6월30일까지 4개월간 덕진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25개소에 배치, 1일 3시간 주5일 근무하며 자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가르쳐주는 아이들의 학습지도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김영재 기자

# 전주시민의 장·모범시민상 후보자 4월1일까지 추천 접수

### 시, 효열장·문화장·애향장 등 7개 분야 각1명·모범시민상 5명 이내 선발

전주시가 애향 전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들을 찾아 나섰다.

전주시는 2016년도 전주시민의 장 및 모범시민상 선발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오는 4월 1일까지 접수한다.

전주시민의 장 및 모범시민상은 교육과 문화 산업 등 지역사회 여러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과 열정을 쏟아온 시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주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런 상으로 손꼽힌다.

전주시민의 자긍심이 담긴 전주시민의 장은 효열장과 교육장 문화장, 노

동·산업장, 공익장 애향장, 체육장 총 7개 분야로 각 부문별 1명을 선발하게 되며, 모범시민상의 경우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한 5명 이내로 선발할 계획이다.

추천 대상은 △부모, 이웃 사랑 미풍양속을 실천함으로써 주민의 칭송을 받은 시민(효열장) △인재육성 및 교육발전에 공헌한 시민(교육장) △창의적인 노력과 활동으로 향토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시민(문화장) △생산업 증가 및 지방산업개발과 발전에 기여한 시민(노동·산업장) 등이다. 또, △공익사업 등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시민(공익장) △전주의 명예를 빛내기 위해 헌신한 시민(애향장) △시민체육의 명예를 빛나게 하는데 기여한 시민(체육장) 등 추천과 심사를 통해 전주시민의 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시는 최종 선정된 전주시민의 장 및 모범시민상 수상자에게 오는 6월 9일(단오날) 열리는 전주시민의 날 기념식을 통해 시상할 계획이다.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는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 예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주요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되며, 시에서 직접 관리

하는 공원·체육시설·시영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는 등 수당으로서 지속적인 예우를 받게 된다.

이일홍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지역 곳곳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추천돼 전주시민의 장의 명예를 높이고 시민들의 귀감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 구석구석 탐방을 통해 진정으로 전주시 발전에 공헌한 시민을 직접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 후보자 선발요강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자치행정과(281-2238)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천년을 숨 쉬는 전주한지**

천오백 지천년(絹五百 紙千年)이라는 말처럼 한지는 질기다  
전주한지는 만지면 느껴지는 촉감이 부드럽다  
전주한지는 통기성이 좋다  
전주한지는 보온성이 좋다

**한지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

한지 수의, 남글함  
한지벽지, 장판  
수제한지담순지, 색한지, 공예용지, 예술지, 예담지, 예견지  
응용한지인견한지, 대례지, 환희지, 순수운용지  
아토피피부염, 미백에 효과가 있는 한지비누, 닥분말팩  
각종 한지사 제품 넥타이, 양말, 지갑, 손수건, 러너 등

전주시  
http://www.jeonju.go.kr